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문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음 6월 14일) 제23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0년 국가예산 확보 및 전북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고항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용범 행정부지사, 박용진, 박주현, 박재현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정세균, 신경민, 이학영 국회의원, 이원택 정무부지사,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 조기 가동

도,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새만금 등 현안사업 건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제·개정 법안 통과 논의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대도약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15일 국회에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연고 진안), 박재현 의원(연고 고창), 신경민 의원(연고 전주), 이학영 의원(연고 순창), 박용진 의원(연고 장수)과 박주현 의원(연고 군산) 등이 참석해 2020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연년과 달리 빠른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배경에는 매년 국회단계에서의 대폭적인 예산축감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단계에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한목소리(One-voice)를 내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 5억원 '복합미생물 산업화기반구축' 14억원과 수산양식을 데이터산업으로 전환, 양식기술 향상을 위한 '아쿠아디지탈트 원기반 구축' 10억원 예산 반영을 피력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128억원, '중고자동차 수출합단지조성' 50억원, '홀로그랜산업기술개발사업' 150억원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산업 주주기 생태계 및 산·학·연 협조체계를 갖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지정 및 센터구축' 6억원,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지원' 9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건립' 80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의 투자유치 및 2023세계잼버리 성공개회를 위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280억원, '새만금 신항만부두시설 건설' 51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10.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000억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전북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라유화진흥원 설립' 5억원, '전라천년문화관광광역개발계획' 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167억원 반영을 강조했다. 약취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왕궁 및 용지 현업측사매입비' 1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확대' 141억원 반영도 건의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으로 논의중인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고, 금융기관 집적화, 전문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금융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육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북도가 전북 뒤통을 찔고 전북 자존의 사대를 열어야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다"면서, "앞으로 남원 공공의료 대학원법 등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군산조선소 조기재가동 등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시길"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기재부 2차, 3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8월까지 송하진 도지사, 지휘부와 실국장 주 2회 이상 기재부 활동 등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한다. /김진성 기자

“학생 생활 관련 정책 꼼꼼히 확인·점검을”

김승환 교육감, “보충수업·야자 강제 여부 등
사안 확인 뒤 문제 발견되면 감사 착수해야”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속사 배정 원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고정식 명찰 착용, 학교내 학생편의 시설 확충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은 “기속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원거리 거주 학생 우선 배정을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배정”이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도록 이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당부했다.

또 화장실·탈의실·샤워실·학생회실 등 학생 편의 시설이 각 학교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서도 담당부서에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면 시설과 협조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웃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운동을 한 뒤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착용하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면서 “(학교 밖 명찰 착용 등)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9년 11월 학교 밖에서까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며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새만금개발공사가 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주), 전북 지역 업체 6곳 등 총 10개사로 구성됐다.

이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는 사업의 기본방향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 ▲새만금 기본계획 추진 역량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 보유 ▲발전시설의 안정성, 환경보호 능력, 경제성 ▲새만금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역상생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는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공모제안서에는 지역업체 위주의 시공과 전북지역 기자재를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